원각사 주변, 발파 작업에 대웅전 '흔들'

주지 반산 스님, 3월 29일 기자 간담회서 호소


원각사가 석계산업단지 조성 개발 공사로 수행환경 훼손 위기에 처했다. 주지 반산 스님은 사찰 위 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해 피해 여부를 설명 중이다.

양산시 · 태영건설 '석계산업단지'
대웅전 바로 위 10m 도로 공사 추진

반산 스님 "공사 전 설명과 달라"
잦은 발파로 인해 사찰 기능 마비
"이주 혹은 대토 보상 강력 요구"
산업단지측 "이미 조치 취해"

수행도량이자 통도사 말사인 원각사(주지 반산)가 수행 환경 훼손 위기에 처했다. 원각사가 위치한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양산시와 태영건설이 민관합동으로 개발 중인 '석계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대웅전 바로 위 10m 거리에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다. 원각사는 "도로공사로 인해 사찰 역할이 완전 마비 됐지만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원각사 주지 반산 스님은 3월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자연을 훼손하는 공장부지가 들어오는 것으로도 주변 환경이 삭막해지고 경관이 훼손돼 안타깝다. 또한 처음 설명들은 공사 계획과 달리 대웅전 위에 바로 도로가 들어서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산 스님은 공사 진행 전 시공사인 (주)석계산업단지가 설명한 사실과 공사 진행이 상이하다고 말했다. 스님의 말에 따르면 (주)석계산업단지는 공사 전에는 사찰과 도로 간 거리가 100m 가량 떨어져 사찰이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웅전 바로 위 10m 높이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하루 12번도 넘는 발파 작업 때문에 기도가 힘든 것은 물론이고 힐링을 위해 사찰을 찾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스님은 아울러 "사찰에 금이 가는 것은 예사고, 천장에 붙어 있던 등이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흔들림이 심하다"고 조치를 요구했다.

스님에 따르면 양산시는 석계리 산7번지 일대를 2009년도에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유치하기 위해 참여 신청했으나 실패, 이후 2011년 한국전지연구원, 고성능 모터기술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연이어 실패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이명박 前 대통령 정부 당시 양산시는 이 지역을 국가 산업단지인 의료복합단지로 추진했다. 의료복합단지인 경우는 일반 공업 단지 보다 공해도 없어서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걸로 안다. 하지만 양산시는 유치에 실패했다. 그 후 앞선 공사 계획 수준에 맞는 긍정적인 개발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지금 석계리에 들어설 공장들은 고무, 플라스틱 등 화학제조 공장이 들어선다"며 "이것은 명백히 개발을 위한 개발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난개발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스님은 "천성산은 1000명의 성인이 출현했다고 해 천성산이라고 불린다. 원각사는 산 너머 3km 지점에 내원사와 화엄늪이 위치하며 원효대사의 성스러운 자취가 살아 숨 쉬는 양산지역불교 성지요 수행처"라며 "양산시와 태영건설 그리고 (주)석계산업단지는 최대한 피해보상에 임하고 우리 원각사가 사찰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상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으로 반산 스님은 양산시에 공사반대 성명서를 제출하고 소송까지도 불사하는 등 강력한 투쟁으로 항변할 것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홍영 (주)석계산업단지 사업부장은 공사 시작 전 공지한 내용과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이 상이한 바가 없음을 주장했다.

김홍영 부장은 "현재 원각사 위에 공사 중인 도로는 35번 국도를 잇는 길로 원각사와 7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대부분의 공사는 진행되면 성토하고 절토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성토 부분 때문에 원각사가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발파로 인해 금이 간 것은 이미 방문 조사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미래 법조인 불자, 신입생 환영 법회 개최

총 65명의 새내기 불자 회원 가입



로스쿨 불교 동아리 법륜회(회장 임태량 · 부산대)와 법등회(회장 승성원 · 동아대)는 3월 25일 부산 대광명사에서 신입생 환영 법회를 개최했다. 〈사진〉

미래 불자 법조인으로 활동할 법륜회 · 법등회 회원들은 새내기 신입 회원 65명의 가입을 축하하고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께 법문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목종 스님과 공병수 부산불교거사림 회장, 정승윤 부산대 법륜회 지도 교수 및 회원 100여명이 동참했다. 특히 공병수 회장은 인재불사를 위해 법륜회와 법등회에 법회를 소개하고 템플스테이를 함께 준비하는 등 여러 활동으로 후원하고 있다. 이날 법회에서 공병수 회장은 임태량 법륜회 회장과 법등회 승성원 회장을 비롯해 모범불자 10명에게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공 회장은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난 것은 기적"이라며 "불퇴전의 마음으로 잘 수행하고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은 "시험 합격의 비결은 마음에서 비롯한다"며 "먼저 마음을 내고 자신을 바로 알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한다. 이어 의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 기도로 하루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문했다.

법륜회와 법등회는 매달 한 달에 2번 부산불교거사림에서 개최하는 법회에 참석하고 템플스테이 및 동아리 활동으로 불교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하성미 기자

영주암, 25년 간 효자 사찰 노릇 '톡톡'

제25회 영주암 효도큰잔치 개최



부산 영주암(주지 범산)이 지역 어르신의 효자 역할을 25년간 담당하고 있어 화제다.

영주암은 3월 28일 경내 원통보전에서 '제25회 영주암 효도큰잔치'를 개최했다. 〈사진〉

영주암은 매년 300여명의 어르신들이 3월이 되면 어김없이 방문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의 공식 잔치 날로 정해져 있는 효도큰잔치 때문이다. 이번 효도큰잔치에서 어르신들은 직접 노래자랑 대회에 참가해 주인공이 되고 초대 가수의 흥겨운 노래를 들으며 어깨춤을 췄다. 영주암은 효도 잔치를 위해 과일과 떡 식혜 등 잔치 음식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을 대접했다. 아울러 경품과 기념 선물도 선사했다.

효도큰잔치에는 박현욱 수영구청장을 비롯해 김정수 구의장, 김덕수 의원 등 지역 의원들이 참석해 "어르신들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보살피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주지 범산 스님은 "부모님을 생각하며 어르신들 모신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5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오늘은 정말 신나게 즐기시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화엄승가회 창립 2주년, 자비나눔 실천

부산 화엄승가회(회장 자인)가 창립 2주년을 맞아 자비 나눔을 실천했다.

화엄승가회는 3월 27일 부산 양정동 라메르뷔페에서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화엄 승가회는 부산불교교육대학 동문 중 출가한 스님이 60여명에 이른다. 그 스님들이 주축으로 300여명의 스님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 전국 불교대학 중 최초로 구성된 동문 승가 모임이다.

화엄승가회는 이날 모교인 부산불교교육대학에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부산대와 동아대, 부산해양대, 부경대, 동의공대 등 불교 동아리에도 지원금을 지원했다.

회장 자인 스님은 "자살예방과 교통질서 캠페인 그리고 연탄나누기 등 여러 활동을 이어 올 수 있던 건 어려운 사중 살림 속에서도 우리 회원 스님들이 참여해준 결과이고 공덕"이라고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울산 · 창원, 봉축 연등 축제 준비 완료

울산불교종단연합회, 울산 태화강 둔치서 4월 21~23일
창원시불교연합회, 창원 마산항 제1부두서 4월 28일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울산과 창원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연등축제가 마련된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남현)는 '2017년 태화강 연등 축제'를 4월 21~23일 남구 태화강 둔치(舊 태화호텔 앞)에서 개최한다.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을 주제로 여는 이번 태화강 연등 축제는 첫째 날인 21일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연등에 불을 밝히는 점등식과 점등불 꽃놀이가 마련돼 화려하게 시작한다. 아울러 행복 바라미 행사, 이웃종교합창제, 낙화놀이, 불교우수상품 전시 등이 진행된다.

둘째 날 22일은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 한마당이 열린다. 봉축 법요식으로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발우공양 체험, 무차만발공양, 부처님이운행렬, 초청가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23일은 시민한마음축제로 연등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제등행렬이 진행된다. 그 외 발우공양체험, 떡 나누기, 무차만발공양,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체험할 수 있다.

제등행렬 코스는 태화강둔치에서 출발해 시청, 달동 롯데마트사거리, 공업탑로터리, 울산대공원 동문광장까지 이어져 총 2.7km이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남현 스님은 "연등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각 종단의 스님들이 협력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욱 화합하고 성장하는 울산불교를 발원한다"고 당부했다.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도홍)는 다가오는 봉축을 맞아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창원시 연등 축제'를 봉행한다. 연합봉축법요식은 4월 28일 오후 7시 마산항 제1부두(가고파국화축제장)에서 개최된다.

법요식에 이어 8시에는 '창원시민과 함께하는 봉축음악회'를 연다. 출연가수 홍경민, 홍진영, 설운도, 신유, 서지오가 화려한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

한편 연등축제에 앞서 창원시불교연합회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창원시 다문화 한마당축제'를 진해 중원로터리 광장 중원쉼터에서 개최한다.

다문화체험 문화마당이 마련되며 노래자랑 및 축하공연으로 흥겨움을 더한다. 법요식 및 봉축탑 점등, 제등행렬도 열릴 예정이며 장학금 전달로 자비나눔도 실천한다.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연합신도회 2017 주요 사업 확정

3월 28일 정기총회서 4개 분야 주요사업 20개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박대성 · 사진)는 3월 28일 코모도호텔 희락정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불교수행 △포교 △불교연구 △문화 등 4개 분야 20여개 주요 사업을 확정했다.

아울러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새롭게 시민공원에서 열릴 연등축제에 대해 홍보하고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앞으로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사찰순례와 부산불교합창제, 자비 나눔, 대학생 불교 동아리 지원에 더욱 앞장선다. 또한 〈부산불교100년사〉 제작을 지원해 불교 역사를 새롭게 정립하고 팔관회에도 적극 동참한다.

하성미 기자

불교도서, 명상음반,
불교용품 전문

운주사



미아리고개
• 성신여대
아리랑고개
4호선 성신여대입구 3번출구
동일하이빌 지하1층 운주사
• 성북구청

www.unjusa.com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Tel. 02-3672-7181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연등(등표)사다리


법당용 12E | 외곽용 26E | ISO9001 | ISO1400 | 전선플러그 | 승하강장치 특허기술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